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11.17.(화) 11월 3주차 (제26-57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AI)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연방의회의 AI 정책 의제 전망 및 현지 반응 ····· 1
• (통상)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동향 및 선전 APEC 회담 전망 ····· 7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규제)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첨단 AI 반도체 원격접근 통제 강화 발표 ····· 11
• (인공지능) 팍스 실리카 10개국, '초지능(SI) 공급망 보호' 샌프란시스코 선언 채택 ····· 12
• (조선업) 美 행정부, 존스법(Jones Act) 면제 90일 추가 연장 및 외국선박 이용 심사 지속 ····· 13
• (산업) 美 하원 중국특위, 對中 경쟁 대응 위한 범정부 산업전략 수립 촉구 ····· 14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법안) 특이동향 없음 ····· 14
• (행사안내) CSIS, ITIF 등 3건 ····· 14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5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6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11.17(화)	• 소매판매 (Retail Sales)
11.18(수)	• FOMC 회의록 공개 (FOMC Meeting Minutes)
11.19(목)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Initial Jobless Claims)
11.20(금)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Sentiment — Final)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AI)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연방의회의 AI 정책 의제 전망 및 현지 반응

- 차기 의회에서 AI 안전과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감독·입법 논의가 강화될 전망
- 주별 규제는 유지되나, 반도체 수출통제 등 국가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 지속 예상
- 우리 기업, 데이터센터 투자·전력 조달 및 AI 수출통제 변화 영향 검토 필요

1. 제120대 의회(2027~2028)의 AI 정책 의제 전망

1 연방의 AI 규제 선점 시도 무산 이후, 주(州) 단위 규제 체제 확대 전망

• 기존에 행정부·공화당이 추진했던 주 AI 법률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입법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중간선거 결과 연방 입법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전망

〈연방 차원의 주(州) AI 법률 선점 시도 및 결과〉

기간	시도	결과
'25.7.1.	상원이 감세법(OBBBA)에 포함된 주 AI 법률에 대한 10년 모라토리엄 조항을 표결	찬성 99표, 반대 1표로 해당 조항 삭제
'25.11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 AI 법률 선점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	해당 조항이 NDAA 최종안에서 제외되어 입법화되지 않음
'25.12.11.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I」 발령	의회를 통한 선점 입법이 무산된 뒤, 행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전환
'26.3.20.	백악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주의 AI 개발 규제 금지를 의회에 요청	해당 제안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음.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및 언론 참고

• 민주당은 연방 규제가 주 규제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법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기준으로 유지될 가능성**

- 다만, 충분한 연방 규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국가 차원의 AI 규제 체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2 프런티어 AI 안전 입법 논의 본격화

• 초당적 「FRONTIER Act」*가 AI 안전 규제의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부상

* Frontier Risk Oversight, National Transparency, Independent Evaluation, and Reporting Act (H.R. 9925)

- 공화당 오버놀트 의원과 민주당 트라한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26.7.23.) 초당적 법안으로 에너지·상무위원회와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발의

• 모든 AI 개발기업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모델의 연산 규모와 개발 기업의 **수익·AI 투자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

- 상무부에 **AI 안보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AI Security) **직위를 신설**, 규제 기준 마련·독립 검증기관 인허가·사고 보고 체계 등 관리

〈그 밖에 민주당이 제안한 유관 입법·정책 정리〉

구분	제안자	주요 내용
CLAIM Act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 초안 공개 ('26.10.7.)	AI 에이전트의 위법 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Moratorium Act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발표 ('26.3.25)	강력한 국가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연방 차원에서 일시 중단하는 방안. AI 안전과 함께 전력 요금, 지역사회, 환경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도록 제안
FDA형 AI 감독기관	로 칸나 하원의원, 제안 ('26.9월)	식품의약국(FDA)과 유사한 연방기관을 설치해 AI 개발과 출시를 감독하는 구상

[자료] 개별 의원실 보도자료 및 CNBC

3 감독·조사 강화

• 하원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 **AI 안전사고 정보 제출과 지속적인 보고 요청**

- Anthropic, Google, Meta, OpenAI, SpaceXSI에 AI 모델의 오정렬(misalignment) 및 **안전사고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 사고 발견 후 48시간 이내 위원회에 통보 요청. 핵심 기반 시설 관련 사고는 늦어도 발견 후 24시간 이내 통보하도록 요청

• 차기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AI 기업에 대한 감독과 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상임위원회가 조사 의제를 설정하고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청문회 개최와 소환장 발부 등 **강제 조사 수단을 검토**할 가능성

〈AI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 지도부 전망 및 예상 의제〉

위원회	위원장(전망)	AI 관련 예상 의제
상원 상무과학교통위	마리아 캔트웰 (민주, WA)	프런티어 AI 안전, 프라이버시, 아동 온라인 안전, FTC·FCC 감독
상원 재무위	론 와이든 (민주, OR)	데이터센터 과세, AI 기술로 인한 실직자 지원 등
하원 에너지상무위	프랭크 팔로니 (민주, NJ)	빅테크 규제, 연방 프라이버시법, 데이터 브로커 투명성, 아동 온라인 안전, 데이터센터 건설의 연방 차원 일시 중단 등
하원 감독개혁위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 CA)	행정부의 AI 활용·연방 기술 조달·정부 데이터 관행 조사, 트럼프 일가 사업 및 행정부 부패에 협조한 기업에 대한 조사 경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	조 로프그렌 (민주, CA)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책임 있는 AI 규제 병행, NIST 등 연방 AI 연구·표준 소관, 프런티어 AI 안전사고 보고 요구
하원 AI 특별위(검토 중)	미정	제프리스 하원의장(예정)이 신설 검토 중, 하원 중국특위를 모델로 소환권을 보유한 AI 특위 제안

[자료] Akin, Jenner, IAPP, BloobergGov, PPC Land

4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 부담 및 세제 혜택 축소

•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확충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초당적 공감대** 형성

- 현 119대 의회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 수요 충족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입법 진행. 비용 부담을 의무화할지 또는 주 정부의 선택에 맡길지가 쟁점

• 민주당,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축소와 AI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지원 추진

- 와이든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자의 서비스 총수입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데이터센터 투자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

〈데이터센터 전력비용 부담을 위한 119대 의회 입법·정책 동향〉

법안 및 조치	주요 내용	진행 경과
Ratepayer Protection Act (H.R. 9340)	전력 수요 100MW 이상 기업이 전력망 증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주 정부가 검토하게 함.	하원 통과(9.16.) → 상원 심의 중단
GRID Savings Act (S. 5199)	전력 수요가 150MW 이상 대형 신규·확장 부하에 대해 전력망 연결·비용 배분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증설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 회부(7.30.)
와이든 상원의원 데이터센터 조세 패키지 토론 초안	전력 용량 25MW 초과 데이터센터의 서비스 수입에 소비세 부과, 100% 보너스 감가상각·연구개발 세액 공제·기회특구 등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	토론 초안('26.10.23)
Data Center Tax Accountability and Disclosure Act (S. 5054)	전력 수요 25MW 이상 데이터센터에 월별 전력·물 사용량, 최대 전력 수요, 전력원, 온실가스 배출, 비상 발전 설비 및 입지 정보를 보고하도록 함.	'26년 7월 발의.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
No Tax Breaks for Data Centers Act (S. 5418)	데이터센터가 기회특구 세제 혜택 제한 규정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발의(9.16.)

[자료] 의회 홈페이지

[5] 수출통제·국가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 지속 전망

-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초당적 추진 기반을 확보**했으며, **차기 의회에서도 주요 국가안보 의제**로 다뤄질 전망

- 하원 외교위원회는 '26년 「AI OVERWATCH Act」, 「Chip Security Act」, 「MATCH Act」를 각각 42대 2, 42대 0, 36대 8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

- 세 법안은 △**최첨단 AI 칩 수출 제한** △**수출 칩의 전용 방지**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의 동맹국 간 정렬**을 각각 목표

- **엔비디아 사태를 계기**로 3개 법안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연내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화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임 후, **양당 지도부**가 **NDAA를 통한 AI 칩 수출 통제 강화에 적극적인 지지 표명**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119대 의회 입법 동향〉

법안	주요 내용
AI OVERWATCH Act (H.R.6875)	고성능 AI 칩의 대중·대외 수출 제한을 법제화하고, 저성능인 반도체도 상무부가 미국 내 공급과 최종사용자·용도를 확인한 뒤 수출을 허가하도록 규정
MATCH Act (H.R.8170)	CXMT·Hua Hong·Huawei·SMIC 등 중국 및 기타 우려국 기업 시설에 대한 제한 강화,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동맹국과 조율
Chip Security Act (H.R.3447)	수출된 반도체가 허가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무부에 칩 보안·위치 확인 체계 마련 요구

[자료] 의회 홈페이지

- **미·중 정상 간** 합의한 **AI 대화 채널의 이행**도 **의회 감독 대상**이 될 전망

  - '26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AI 대화 및 AI 관련 사고 소통 채널을 설치하고, 지속해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의회는 후속 대화의 개최 여부와 논의 범위, 사고 발생 시 소통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가능성이 있음

2. 현지 언론 및 전문가 의견

□ 민주당 주도 의회, 포괄적 AI 입법보다 감독 활동 우선 추진 전망

- R Street의 애덤 티어러(Adam Thierer)는 민주당이 포괄적 연방 AI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청문회·조사·자료 요구 및 소환 등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Foley & Lardner는 AI 안전사고·모델 시험·데이터 관리 관련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프런티어 AI 안전 법안 논의도 가속 전망

□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AI 투자 사이클의 장기 전망은 긍정적**

• State Street Investment Management는 선거 결과가 **AI 산업의 장기 성장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

- 규제 감시 강화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AI 투자 사이클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

□ AI에 대한 우려가 양당으로 확산하면서 안전 입법 논의 가능성 확대

• 애틀랜틱카운슬의 그레이엄 브루키(Graham Brookie)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AI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

□ AI 규제·감독 강화에 따른 우리 산업별 영향 점검 필요

•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①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조절**, ② **전력 조달 방식의 변화**, ③ **대중 수출통제 범위 확대**, ④ **주 단위 AI 규제 누적**, ⑤ **의회 조사 리스크** 등으로 요약 가능

〈미국 AI 정책 변수에 따른 우리 업종별 영향 전망〉

업종	예상 경로	영향 전망
메모리·HBM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지역 입지 통제권 강화, 과세안(보너스 감가상각 배제 등) →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속도 조절	하방 요인
전력기기·ESS·송배전·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센터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압력 고조	기회
데이터센터 투자·건설·EPC	주민투표·지방 모라토리엄, 입지 결정의 지역 통제 강화, 세제 혜택 축소	부정
AI 모델·소프트웨어·서비스	주별 AI 법 누적 및 연방 차원의 표적 규제(독립평가 및 보고 의무 등) 강화	비용 증가
반도체 장비·소재, 중국 내 생산시설	첨단 반도체에 더해 반도체 제조장비까지 수출통제 법제화 및 동맹국 정렬 요구 제고	규제 리스크
대미 투자·정부 협력 사업 참여 기업	민주당의 행정부-업계 AI 정책 유착 조사 확대, 의회 소관 상임위의 행정부 부패 협조 기업 조사 경고	법무 리스크

[자료] 현지 언론 및 로펌 자료 종합

▪ 작성자 |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Foley(11.4.), R Street(11.4.), Atlantic Council(11.4.) 외 다수

(통상)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동향 및 선전 APEC 회담 전망

▪ 美 대통령, 아시아 순방(11.16~19) 중 선전에서 미·중 회담과 미·중·러 회담 참석 예정
▪ 美, 태국과 무역협상 공동성명(마닐라), 선전에서는 통상·AI 안전·핵무기 감축에 주목
▪ 전문가들, 선전 회담에서 즉각적 합의보다는 후속 협의를 통한 진전 가능성 전망

1. 개 요

□ 트럼프 대통령,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 **트럼프 대통령은 11.16일 출국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

-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회의와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태국과 상호 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

- 중국 선전에서는 11.18~19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미·중 양자 회담과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

□ 선전에서는 역내 경제협력과 미·중 통상·AI 현안에 주목

•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과 연결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 디지털화와 AI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구상을 검토**

- 미·중 양국은 일부 통상조치의 유예를 연장한 가운데, 선전 양자회담에서 AI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 절차를 논의할 전망

2. 주요 동향 및 회담 전망

□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회의 개최 및 미·태국 무역협상 공동성명 서명

• **미·일·호주·인도 정상은 2년 만에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자의적 수출 제한을 포함한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해외 공급처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쿼드 차원의 핵심광물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

- 쿼드 정상은 4개국 기업 간 거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7년 초 첫 쿼드 기업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1.17일 상호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

-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이 미국산 상품 관세 전면 철폐하고 주요 비관세 장벽 완화하며, 약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할 것이라고 밝힘
- 양국은 협정 서명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예정

□ **선전 APEC에서는 역내 경제협력, 미·중 양자회담에서는 통상·AI 현안에 주목**

• **(APEC) 고위관리들은 중국이 제안한 2027~2030년 무역 디지털화 협력 구상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성명 초안을 검토**

- 중국은 보건·교육·에너지 분야의 AI 활용 확대를 담은 디지털 경제·AI 성명안도 제안

• **(미·중) 부산 합의에 따른 일부 통상조치의 유예가 연장된 가운데, 선전에서는 AI 안전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

- 중국은 '25.10월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 조치의 유예를 '27.1.10.까지 연장했으며, 디스프로슘·터븀 등 기존 통제 품목에는 수출허가 요건이 계속 적용
-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00억 달러 상당 상품의 상호관세 인하를 목표로 한 무역위원회 구상과 관련해 선전에서 추가 진전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
-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이 AI 관련 사고 발생 시 연락 절차를 논의하고, 첨단 AI 모델 시험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

□ **미·중·러, 11.19일 선전에서 첫 3자 대면 정상회담 예정**

• **미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정상 간 논의는 구체적 합의 없이 첫 의견 교환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중국 외교부는 3국 정상이 세계 평화 수호와 주요국 간 전략적 안정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3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마닐라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별도 회담할 의향도 있다고 답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일정〉

일자	장소	주요 일정
11.17.	필리핀	마닐라 도착
		쿼드 정상회의 참석
		미·태국 상호무역협정 협상 공동성명 서명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
11.18.	필리핀	미·필리핀 정상회담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선전	마닐라 출발 및 선전 도착
11.19.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참석
		미·중 정상회담
		미·중·러 3자 정상회담

*11.17. 공개 일정 및 보도 반영, 향후 일정은 변경 가능.
[자료: Roll Call, 백악관]

3. 전문가 평가 및 시사점

□ 미·중 통상조치 추가 유예와 희토류 공급 동향 주목

- ’26.12월 G20에서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날 예정이어서, 선전에서 통상조치 유예를 서둘러 연장할 유인은 제한적(브루킹스)

- 부산 합의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25.4월 수출통제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돈 것으로 분석(CSIS)

- 중국산 희토류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은 거래 품목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와 공급업체의 출하 일정을 확인할 필요

□ 미·중 AI 안전 연락망 운영 절차와 3자 핵무기 감축 논의의 후속 협의 주목

- 미·중 AI 사고 연락망의 실효성은 담당 기관 지정과 통보 대상·기한 등 운영 절차의 구체화에 달려 있다고 평가(ASPI)

□ 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적용 조건 점검 필요

- 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최종 협정문과 시행문서의 품목별 관세율 및 적용 시점에 유의 필요

▪ 작성자 |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 백악관(11.17), 로이터(11.16), APEC(11.16), CFR(11.17) 등 워싱턴DC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규제)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첨단 AI 반도체 원격접근 통제 강화 발표

-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반도체의 우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잠정최종규칙(IFR)을 발표** (11.16)

- 중국·러시아 등 D:5* 국가 및 마카오 소재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능력을 원격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용 첨단 반도체·서버의 수출·재수출·역내 이전에 허가 의무 부과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무기금수 대상국 그룹으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포함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반도체 제조·수출업체 등에 고객의 실제 소유·지배관계 확인을 의무화해 우려국의 우회 이용 방지

- 중국 등 우려국으로의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 등 5개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재수출 등에 대한 BIS 사전허가 의무 신설

- 다만 미국에 본사 또는 최종 모기업을 둔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수출 품목·수량 등을 BIS에 매월 보고하는 조건으로 신규 허가 요건에서 제외

- **기존 AI 확산규칙(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지하는 한편,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부 내 이견에 주목**

- 2025년 1월 도입됐으나 집행되지 않았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규칙을 공식 폐지하고, 국가·최종용도별 위험에 기반한 선별적 수출통제 방식으로 전환

* AI 확산규칙: 한국 등 18개 우방국에는 수출허가 예외를 인정하고, 중국 등에는 엄격한 제한, 기타 국가에는 물량 한도 등을 적용한 국가별 차등 규제

- BIS는 이번 규칙이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명시했으며, 폴리티코(11.16)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무부의 반대에도 규칙 마련을 주도했다고 보도

- 블룸버그(11.16)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브라질 정부도 규제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영향 평가는 어렵다는 입장

▪ 자료원 | BIS(11.16), 폴리티코(11.17), 인사이드(11.16), 블룸버그(11.16)

(인공지능) 팍스 실리카 10개국, '초지능(SI) 공급망 보호' 샌프란시스코 선언 채택

• **(개요) Pax Sillica 10개국, 초지능(Super Intelligence) 공급망 보호 원칙 합의**

- 미국 등 10개국은 미 국무부 주최 Pax Silica 창립 회원국 회의에서 **SI 공급망 보호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11.15)

* The San Francisco Declaration on the Secure Foundations of Enduring Prosperity
서명국: 미국, 한국, 호주, 인도, 이스라엘, 일본, 카타르, 싱가포르, UAE, 영국 10개국

- 선언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AI' 명칭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SI(초지능)'를 사용, 선언문 각주에도 일부 참여국에게 '초지능'은 '인공지능'을 의미한다고 명시

* 행정명령(9.29)은 AI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약 70년 전 대비 현재 기술이 크게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인공지능(AI) 대신 초지능(SI)을 사용하도록 규정

• **(상세) 민감 기술·핵심 인프라 보호 원칙 마련, 실무 협력을 위한 5개 워킹그룹 추진**

- **(원칙)**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공식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다변화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명시

- **(민감 기술 정의)** SI 공급망에 필수적인 재화·소프트웨어·소재·부품 등 적대 세력이 확보할 경우 군사·정보상 우위나 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의

- **(핵심 인프라 규정)** 항만·운송·통신·물류망과 ICT·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며, 기능 마비·적대적 통제뿐 아니라 데이터 무단 유출도 위협으로 규정

- **(워킹그룹)**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해 ① 혁신 친화적 정책 프레임워크 ② 주요 산업의 SI 도입 ③ SI 스택 전반의 공급망 협력 ④ 세이프하버 및 공급망 보안 허브 ⑤ SI 보안과 회복력 등 5개 워킹그룹 설치 추진

▪ 자료원 | 국무부(11.15), 블룸버그(11.15), 행정명령(9.29)

(조선업) 美 행정부, 존스법(Jones Act) 면제 90일 추가 연장 및 외국선박 이용 심사 지속

- **美 국토안보부(DHS), 국방부 요청에 따라 국가안보 목적의 존스법 면제 90일 추가 연장**(11.13)

- '26.3.17 발효된 면제 조치의 3차 연장으로, '26.11.16~'27.2.14까지 외국 국적 선박의 미 연안 운송 허용*

* 존스법 면제 경과: 최초 60일 면제(3.17~5.17) → 1차 90일 연장(5.18~8.16) → 2차 90일 연장(8.17~11.15) → 3차 90일 연장(11.16~'27.2.14)

- **美 정부, 개별 항차별 승인 및 자국 적격선박 가용성 확인 절차 유지**

- 외국선박을 이용하려는 업체는 항해 전 국방부와 해사청(MARAD)에 서면으로 선박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고,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는 상황 공유 목적으로 통보

- MARAD는 미국 연안 운송 적격선박의 가용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외국선박의 개별 운송 허용 여부를 결정

- CBP는 '26.11.16 기준 잠재적 면제 대상 품목 목록을 별도 공개했으며, 해당 품목의 외국선박 운송은 국방부의 개별 항차별 심사 및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

- 면제 승인 외국선박 운송업체는 CBP에 선박·화물 정보를 신고하고, 선박 소유자·운영자 및 면제 신청자는 항해 종료 10일 이내 MARAD에 운송 내역 및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보고

- 에너지 및 필수품의 비상 운송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연안 운송 적격선박의 우선 활용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공급망 안정과 자국 해운업 보호를 병행하는 기조 지속

▪ 자료원 | CBP (11.13), International Trade Today(11.13)

(산업) 美 하원 중국특위, 對中 경쟁 대응 위한 범정부 산업전략 수립 촉구

- **美 하원 중국특위,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미국 제조업 기반 약화 및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 美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미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과 산업기반 재건 방향을 분석한 초당적 공동보고서 발표(11.13.)

-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전략산업 생산 확대 ▲과잉 공급 ▲저가 수출 등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

- **핵심 산업 역량 복원·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동맹국 협력 중심의 장기 산업전략 제안**

- 중국의 반도체·바이오제조·공작기계 분야 산업정책 성과와 항공우주 분야의 한계를 분석하고, 자국의 해외 의존도 축소 및 타국의 대중국 의존도 확대 전략 지적

- 미국의 핵심 산업 역량 복원, 공급망 강화,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숙련 인력 양성을 전략적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응한 핵심 산업 보호 필요성 강조

- 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과 첨단원자력 관련 ADVANCE 법을 초당적 산업 정책 사례로 제시하고, 동맹국 협력 및 정권 교체와 무관한 장기적 산업 재건 추진 촉구

▪ 자료원 | 하원 중국특위 공식 발표문(11.13), 인사이드(11.17)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Asia Society	11/23(월) 10:30 am	〈After Shenzhen: What Did Trump and Xi Achieve?〉 ▪ 웬디 커틀러와 함께 APEC 역내 의제와 대만·안보 문제, 푸틴·김정은 관련 외교 동향의 함의 논의	링크
Brookings	11/24(화) 10:00 am	〈What is next for the US-China AI safety dialogue?〉 ▪ 美·中 AI 대화 진전 및 비상소통채널 협력 논의	링크
Peterson	11/24(화) 12:00 pm	〈Next steps for the USMCA and US trade laws: A post-election review〉 ▪ 2026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USMCA 재검토, 대캐나다·대멕시코 무역정책, 미 의회의 통상권한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링크

* 11월 17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Weekend Air Travel Woes Mount After FAA Lifts Nationwide Ground Stop (미국 항공편 1만2,500편 넘게 결항, 이륙 재개 후에도 주말까지 혼란)
	미 연방항공청(FAA)이 11월 13일 관제 장애로 전국 이륙을 4시간 중단해 당일 9,000편 이상, 이튿날 오전까지 3,500편 이상 결항했으며, 이번 조치는 9·11 테러 이후 '23년에 이어 두 번째
The Washington Post	D.C. gunman attributed attack to frustrations with building maintenance (워싱턴 D.C. 총격으로 1명 사망·5명 부상…범인 "곰팡이·누수에 불만")
	워싱턴 D.C. 로건서클의 콘도에서 11월 12일 총격으로 관리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범인은 사건 직후 통화에서 집 안의 곰팡이와 누수 피해가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in U.S. Colleges Plunges Again (미국 대학 신규 유학생 15% 감소, 2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
	비자 발급과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가을 신규 유학생 등록은 전년 대비 15%, 전체 유학생 등록은 9% 줄었으며, 일부 대학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예산과 학과를 축소
AP News	ICE reports record-high immigration arrests and deportations since Trump's return to White House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 이민세관단속국 체포·추방 인원 사상 최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6회계연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추방 인원이 기관 출범 23년 만에 각각 최다를 기록했으며, 추방 인원은 전년보다 9% 늘어난 48만3,200명이라고 발표
Reuters	US judge blocks Trump policy restricting foreign student work options (미 연방법원, 유학생 인턴십 제한 지침 시행 중단)
	보스턴 연방법원은 11월 17일 유학생의 교과과정 실습(CPT)을 모든 학생의 졸업 필수 실습으로 제한하고, 학점만 인정되는 선택형 인턴십은 금지한 미 국토안보부 지침의 집행 중단을 명령

* 미국 동부 시간 11월 17일 14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35	美 해외투자 규제 확대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11월
US26-34	미국 FCC「Covered List」기반 수입 규제 확대 동향에 따른 시사점	2026.10월
US26-33	美 밀워키 G20 무역장관회의 주요 논의 및 현지 동향	2026.10월
US26-32	美 데이터센터 산업·인프라 및 정책 동향	2026.10월
US26-31	캐나다 대응 관세 발효 및 美 338조 수입금지 조치 주요 내용	2026.10월
US26-30	드론 정책 사례로 본 미국의 통합적 안보통상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9월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